

신지애, 오초아와 첫날 대결서 판정패

LPGA투어 챔피언십 1R 2언더 9위 그쳐... 오초아 단독선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 올해의 선수 자리를 놓고 마지막 대결을 펼치고 있는 '골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와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첫날 대결은 오초아의 승리로 끝났다.
 156점으로 1위를 지키고 있는 신지애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턴리안 골프장(파72.6천650야드)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대회 LPGA 투어 챔피언십

(총상금 150만달러)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나연(22·SK텔레콤), 오지영(21·마벨러스), 박희영(22·하나금융) 등과 함께 공동 9위로 첫날을 마친 신지애는 단독 1위로 나선 오초아에게 4타 뒤졌다. 148점의 오초아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신지애의 성적과 관계없이 자력으로 4년 연속 올해의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지애로서는 쫓기

는 입장이 됐다.
 10번 홀에서 출발한 신지애는 11번 홀(이상 파4)부터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기세를 올리는 듯했다. 그러나 17번홀(파3)과 5m가 안 되는 거리에서 퍼트를 세번이나 시도하며 한타를 잃었고 후반 9홀에서는 버디 1개와 보기 2개로 한타를 더 잃었다. 반면 오초아는 버디 8개를 쓸어들고 보기는 2개로 막아 단독 2위 라이일리 랭킨(미국)에 1타 앞섰다. /연합뉴스

오초아와 신지애가 나란히 7번과 6번 홀에서 보기를 할 때만 해도 둘은 4언더파와 3언더파로 비슷하게 나갔지만 마무리에서 오초아의 뒷심이 돋보였다. 오초아는 마지막 9번홀(파4)에서 5m 버디 퍼트를 성공하는 등 마지막 2개 홀에서 한 타씩 풀리며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이븐파 72타로 공동 29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로는 강혜지(19)가 3언더파 69타로 공동 4위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아이린 조(25), 강지민(29)도 신지애 등과 함께 공동 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6龍의 전쟁 시작됐다

전남, 오늘 서울과 한판승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기쁨도 잠시.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준플레이오프' 고지로 올라가기 위한 치열한 단판싸움이 펼쳐진다.

2009 프로축구 K-리그 정규리그에서 3~6위를 차지했던 FC서울, 성남 일화, 인천 유나이티드, 전남 드래곤즈는 21일(서울-전남)과 22일(성남-인천)에 걸쳐 'K-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2009' 6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전남은 턱걸이로 6강 플레이오프에

오른 상황에서 멋진 '역전 드라마'를 꿈꾸고 있다. 선봉은 올해 정규리그에서 13골을 몰아친 '브라질 특급' 슈바가 맡는다. 하지만 슈바와 짝을 이룰 만한 투톱 자원이 마땅치 않은 데다 최근 원정으로 치른 4경기에서 2무2패로 부진한 게 아쉽기만 하다. 더불어 전남은 서울을 상대로 통산 15승20무21패로 뒤지고 있어 치열한 설욕전이 예상된다.

FA컵 결승에서 수원에 우승컵을 내준 성남의 목표는 '명가재건'이다. 성남 신태음 감독으로선 K-리그 최다 우승팀(7회)의 자존심을 살려 '초보 사령탑'의 딱지를 확실하게 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펜싱 金 6 종합우승

표선수권...남현희 여자부 2관왕

한국이 2009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현희와 전희숙(이상 서울시청), 홍서인, 장예슬(이상 한국체대)로 구성된 여자 플뢰레 대표팀은 2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날 플뢰레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45-34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남현희는 지난 17일 플뢰레 개인전 우승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다.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중국에 40-45로 패했지만 3-4위전에서 카자흐스탄을 45-35로 꺾어 동메달 1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를 수확하면서 종합 순위에서 중국(금4, 은6, 동5)을 따돌리고 1위를 했다. 한국은 지난 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연합뉴스



남현희 선수가 1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09년 도하 아시아 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 ▲김약산·심미경씨 장남 동윤군 손광열·박영자씨 차녀 유미(담양다이내스티 C·C)양=21일(토) 오후 5시30분 서울 노블레스웨딩컨벤션 1층(그랜드볼룸)
- ▲김종언·김옥진씨 장남 민석군 최병욱·민홍순씨 장녀 경란양=21일(토) 낮 12시40분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3층(아이스홀)
- ▲주장배(신안군 의회 의장)·이숙례씨 차남 영준군 정재수·이경순씨 장녀 주희양=21일(토) 오후 1시 신안비치호텔 2층
- ▲이상재(경남무역)·남기향씨 아들 광열(한국노인인력개발원)군 김선만(전 광주경찰청 정보과 외근실장)·박중임씨 딸 세희(한국노인인력개발원)양=21일(토)

오후 1시 무등파크호텔 1층(무등홀)

▲김중권·김두생씨 장남 민수군 박장수(현대건설 호남지사장)·김정숙씨 장녀 새미양=21일(토) 오후 1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층(무궁화홀)

▲권경화씨 삼남 유주상(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군 박진홍(광주시 남구 환경열·박영자씨 차녀 유미(담양다이내스티 C·C)양=21일(토) 오후 5시30분 서울 노블레스웨딩컨벤션 1층(그랜드볼룸)

▲주인철·천연자씨 장남 덕만군 김기중(전 광주일보 총무부)씨 장녀 진경양=22일(일) 오후 1시10분 상무지구 예술의전당웨딩홀 3층(토파즈홀)

▲전학철(광주시 체육회 사무처장)·장광희씨 장남 세환군 서순갑·김종영씨 막내 윤정양=22일(일) 오전 11시10분 예벌부선웨딩컨벤션 3층(퀵컨선홀)

▲송학중·유순임씨 장남 광남(행정고시 제50회)군 광병연(담양군 보건행정담당)·고오순씨 장녀 진주(세무사 제44회)

양=29일(일) 오후 1시30분 강남 목혜웨딩문화원 1층 피로연 20일(금) 오후 5~8시 담양축협회관 2층.

무음

▲배을식씨 별세, 김중욱(JA건설 대표)·종동(우석개발 대표)·종신(두산중공업 플랜트 사업부장)·현숙(남곡중학교 교장)씨 모친상, 차기원(사업)씨 빙모상=발인 22일(일) 순천 성 가톨릭병원 장례식장. 061-720-2316.

▲고무석(전 전남대 교수)씨 별세 영준(장위 치과원장)·수진·승아(서울 비타민 치과원장)·희선(KT 양재동)·보나(치과 의사)씨 부친상 김정근(경희대 교수)·박래준(서울 비타민 치과원장)·기윤서(법무관)씨 빙부상=발인 21일(토) 그린 장례식장 209호. 062-250-4455.

▲이팔임씨 별세 전동현·청선·동채·영화·문자·광숙씨 모친상=발인 21일(토)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마무리도 완벽이다! '빅만 류필기' '김영' - www.kimyoung.co.kr

상위권대학 "FINAL 총정리" 12월 1일 집중강의

11-40 합격안정

무료특강 시사특해 기초문법

12월 1일

김영 편입학원

대한민국 중시방송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 02-3779-8000

RADIO

가톨릭방송 학교 해방 100세 CBS라디오 10:30-11:00

080-600-1031

TV